

영과 혼과 육을 흠 없이 보존해야 할, 7포인트 제자들
-복음으로 여는 학개-

창세기 39:21-23, 데살로니가전서 5:23-24

정윤돈 목사님

* 창29:21-23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판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니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동하게 하셨더라
* 실전5:23-24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떼놓을 수 없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한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절대 불가능한 영육간의 부분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사명, 소명과 가정과 가문과 자녀의 몸 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직장과 그 현장을 위하여 온전하며 생명 결여가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하고 갈등하고 어려위중치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또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나에게만 주시는 그 언약의 레미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실천하여 말씀 성취에 응답을 받고 말씀 성취의 중언으로,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영과 혼과 육을 흠 없이 보존해야 할 7포인트의 제자들”이다. 7포인트의 제자들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교회에도 각자의 포인트와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비우면 다 보인다. 가정에서도 나의 역할과 포지션이 있다. “나 혼자 빠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축구에도 공격수와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있고 모두 역할이 있다. 한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 팀 전체가 진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공동체인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이다. 주어진 위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7포인트의 제자들은 남은 자이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인물을 수없이 이야기한다. 요셉과 다니엘은 백 년에 한 번, 천 년에 한 번 나올 것 같은 인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누구나 영적 황제를 살리는 7포인트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을 부로.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왕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그 왕들은 떠돌이도 못 먹고 지하철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다. 우리가 사는 현장 자체가 축복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가. 예전에는 일본의 전제폭을 보며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여러 면에서 앞선 부분이 많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를 살리려고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겨우 먹고사는 정도가 아니다. 요셉에게 남은 자, 램덴트가 된 것이 시작이다.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영원히 남은 축복과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그냥 먹고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지금의 어려움만 보지 말라.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한 언약을 맡은 자라는 사실이다. 아무런 공부와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진도하고 약한 사람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 남은 자는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왕따시키지 않는다. 약한 사람, 심지어 범죄자라도 시대적인 인물로 만들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7포인트의 제자이고 남은 자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요셉은 맡은 일을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니 결국 다 맡긴 것이다. 여러분이 약간만 성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면 된다. 어느 순간 보면 그 자리에 있게 된다. 내가 여러 사람을 직언으로 채움하며 보니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금방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다. 그런데 남은 사람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배우고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어디 갈 곳도 없고 능력이 많지 않아도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리더가 되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된다고 답을 준다(“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교 마25:21). 그러면 어느 순간 서밋의 자리,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자리에 온다. 여러분이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라. 급하게 한탕을 노리지 말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신용카드를 없애라는 말도 했다. 카드 없애면 처음 3개월은 힘들어도 편하다. 체크카드만 쓰는 것도 방법이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동하게 하셨더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조금씩이라도 직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신다. “항상 기뻐하라 쉬

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 불안과 걱정이 많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게 된다. 돌이켜 보면 대학에 가고 공부하고 대학원과 박사과정을 거치고 목회자가 된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했다. 장애인 시설에서 10년을 살면서도 “하나님, 저를 장가보내지 않으시려면 제가 그 아이들과 살겠습니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셨다. 전 세계를 다니려고 먼저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매시지를 붙잡고 말씀과 선교와 전도에 집중했다. 여행하고 관광하고 놀러 다니는 것에 목매는 것은 남은 자의 길이 아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집중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축구선수가 공이 올 때까지 움직이며 기회를 보듯이 가정과 직장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어제 청년들과 포럼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추셔서 좋은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다. 세계 운동팀을 위해 기도했는데 한 청년이 스포츠 운동팀을 만들자고 했다. 팀을 만드는 목적은 단순히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살고 돈 벌고 RUTC도 세우고 전도와 선교도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조금씩이라도 미래를 걱정하며 여행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맡겨진 일을 똑바로 잘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문이 열린다. 조금씩이라도 오호러 그것이 더 빠르고 안정적인다. 공부할 때, 자격증을 딸 때, 기술을 배울 때, 건강을 관리할 때, 전도하고 훈련받을 때, 내가 있다. 내 위치에 따른 시간표를 알아야 한다.

7포인트의 여정의 삶을 살아온 요셉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기다렸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노예로 보냈습니까? 형들은 왜 나를 팔았습니까?”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비밀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창37:5-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히11:1).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이 더 잘 보인다. 후대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주실 축복이 더 잘 보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고아와 장애인과 함께 오래 살면서도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억지로 참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래가 확실히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강단의 말씀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때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오를 많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까지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못해도 되고 부족해도 된다. “하나님, 지금 안 되도 이후에 되게 그렇게 되게 해 주세요. 후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된다. 내가 안 되면 우리 후대가 받는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막벨라 굴 하나를 가지고 있었지만 후대가 축복을 받았다. 꼭 내가 받아야 하는가. 내 자식이 받으면 더 좋고 내 손자가 받으면 더 좋다.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억울하면 지금 잘하면 된다. 그러면 광야를 30년, 40년 뺑뺑 돌지 않고 열을 만에 들어갈 수도 있다. 나의 응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응답을 바라보면 된다. 지금 전 세계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도 가장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시간표가 당겨진다.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지만 그 감옥은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 이 길이 7포인트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언약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다.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

7포인트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흠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기를 든 자이다. 하지만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먼저 ‘남은 자’가 되면 된다. 남은 자란 믿음의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복음의 사람을 말한다. 내 인생의 목표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고전10:31)이며,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염려나 근심, 걱정하지 않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빌4:6-7, 마6:25-34)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이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우리에게 순례자의 축복이 따라온다. 전 세계를 다니는 순례자는 그저 나 혼자 막 돌아다니거나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이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로마까지 가지 않는가. 미래에 어디로 어떻게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남은 자가 되고, 언약의 사람이 되고, 램덴트가 되며, 믿음과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딱 뽑아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동하게 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어제 운동하고 오는 길에 장애가 있는 청년이 함께 와도 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귀한 사명자였다. 초등학교 3-4학년 무렵부터 근육이 축소되는 불치병을 앓아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 부모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사탕하는 딸이 초등학교 때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부모도 딸도 밟았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었다. 나라면 원망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믿음이 있고 공부도 하며 미래의 비전도 있었다. 그래서 “네가 축복의 통로구나.”라고 말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청년은 본인 자체가 사람들의 기도제목이고 항상 교회에서 도망다녔지만, 복음 안으로 들어오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고 어느새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다. 남은자이다. 여러분도 남은 자이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상한 사람을 보고 포기하면 안 된다. 직장도 교회도 그렇다.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 기를 든 자, 정복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서론

데살로니가전서는 특별한 성경이다. 신앙성경 가운데 매우 일찍 기록된 성경으로 본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들이 중심이었다. 사도행전 17장의 아논처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켰다. 믿은 지 얼마 되었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다(마19:30). 늦게 믿었더라도 내가 더 확실하게 믿어 믿음으로 1등이 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사람이 아논 같은 사람들이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지만 신앙의 뿌리가 짧아 문제도 많았다. 사도 바울은 칭찬하면서도 꾸짖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 중요하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한다.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보존하는가. “영”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한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 지난주에 꼭 CCTV로 저를 보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말, 어떤 내용도 다 내 것이 된다. 이것이 영적 서밋이다. 한 장로님이 교회에 오면 단잠이 온다고 했다. 영적 싸움이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적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혼이 잡되는 것은 깊은 기도 속에서 생각과 지식과 마음과 인생관이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좌파나 우파나를 떠나 복음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깊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은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적이어야 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부터 떠올려야 한다. 그러면 이미 성공자이다. “욕”을 흠 없이 보존하는 것은 운동, 음식, 종합비타민, 예방, 호흡 등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이다. 내일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달란트에 맞게 건강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신앙도, 마음도, 인격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야 한다.

1.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받은 내용과 데살로니가의 문제

큰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에 대하여 보겠다.

1)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 받은 내용

(1)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라 말한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랑해야 한다(골 3:1-2).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이 잡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시며,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누리게 하신다. 물론 진자 견자에게는 더 큰 축복을 위해 육적인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 육처럼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 요셉이 이해받고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한 것도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과정에서 경제, 재물 관리, 인간관계와 정보 등을 배우고 준비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단순한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와 언약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2)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큰 확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곧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이는 바와 같이”라 말한다. 여러분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고 축복하실 것이다. 나의 미래는 보장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마음속에 설렘이 있어야 한다. 불안하면 두려움이 따라온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한일서 4장 18절)라고 하셨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확신과 감사에 차 있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히11:1).

(3)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 한다. 훈련이나 집회에서 말씀에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감사하다. 집에 돌아가도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기뻐한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예배로 기뻐하고 말씀에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그 후대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오늘 예배도 성공해야 한다. 말씀을 큰 기쁨과 은혜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삶 속에 녹아들어 응답도 다가온다. 염려, 걱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4)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퍼져 모든 믿는 자의 본. 데살로니가전서 1장 7-8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한다.

이번 청년 수련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임원이 되어 섬기니 다른 사람들이 청년들이 잘한다고 칭찬했다. 이런 자들도 있으나 교회 안에는 새 가족도 있고 상처 많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중간 사역자가 필요하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라고 하셨다. 약한 사람만 많으면 싸움판이 되지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과 평안과 힘을 얻고 간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 되길 수권한다. 직장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에 적정에 많은 영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밝아졌다. 영양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분위기를 깨고 성도를 쫓아 내지 말라.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쫓고도 섭섭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5)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라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말한다. 어떤 누구의,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서 목회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응답받는다.

2)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1) 예수님을 믿고 죽거나 순교한 사람들에게 대한 의문이 있었다. 순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8절에서 주님의 재림을 설명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리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서로 위로하라”

(2)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일을 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한다.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오신다고 해도 오늘 할 일을 해야 한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 사람은 팔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일(매 돌질)을 하다가 주님을 맞는다(마24:40-41).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2.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한 그리스도인의 삶 - 7포인트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성도들의 삶

1) 지속되는 환난과 핍박에서도 굳게 서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비밀을 알아야 한다.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

러분이 성공하고 큰 응답을 받고 큰 인물이 될수록 큰 문제가 더 많이 온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응답으로 보고 축복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해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우리 삼촌의 아들 결혼식에 갔을 때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왔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예배가 끝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는데 빌딩을 몇십 개 가진 엄청난 부자가 “오늘 많이 배웠네.”라고 했다. 불신자였지만 그 모습을 보며 성공하는 사람의 그릇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 러분도 스스로 굳게 서기를 바란다. 어떤 면적 속에서 거기서 받을 축복을 바라봐야 한다. 어떤 궁극의 간장 종지만 한데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이 골라 두렵기라고 했다. 성도의 속이 얼마나 좁고 작으면 그것보다도 못하겠는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할 때 속이 좁아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큰 그릇이 되기를 축원한다.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한다. 교회에서도 헌신한 사람에게 일 더 시킨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계속 핍박하고 이유를 대기 때문이다. 일을 맡기면 “감사합니다. 나를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누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나와야 한다. “또 이 일 줘요”나 힘드네, 바쁘네.” 하면 안 된다. 바쁘다는 것도 때로는 거짓말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을 해버리면 나머지 시간이 비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못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고 근본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집중할 것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무능한 사람을 자유해 유능한 랍넌트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

3)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8절은 우리가 거룩할 것을 말하고 있다 말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중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 상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는 부추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해지는 것이 목표이다(마5:48).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빌1:6). 기도와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5년, 10년이 되어도 물레 술과 담배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그것이 끊어졌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둬나케 하시고 체질도 완전히 바꾸실 줄 믿는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다. 그러나 집중도 충성했는데 하도 하도 힘들지 않은 것, 그것이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언약의 길이다. 300%의 길이다. 즐겁고 재미있고 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참고 또 참기만 해서는 끝까지 가지 못한다.

4) 자신의 직업과 일에 힘써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한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면 된다. 루터와 칼빈의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에서는 직업 소명설을 이야기했다. 과거에는 성직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성도의 직장도 직업과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 정신 때문에 유럽의 산업과 문화가 발전했고 미국도 발전했다. 개혁주의의 정신은 성실하게 일하고 근검절약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었다.

5) 말세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9절은 “너희는 다 믿는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은 구원을 세우심은 도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우리를 밤에 깨어 하심이라”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므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한다.

6) 교회 생활과 자유 사역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15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에게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여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교회 안에는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명자들, 중간 사역자, 중직자가 되어 이런 이들에게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거둬나케 하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란다.

7)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형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8)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5:19-22)”

9) 마지막으로 삶의 절대목표다. 영과 혼과 육을 흠 없이 보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24절은 “평강의 하나님이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5장 23절 앞부분에서 “평강의 하나님이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24절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한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랍넌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연약하고 갱신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고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나를 완전한 사명자, 전도자, 제자로 거둬나케 하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시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은 사랑도 없고 더럽고 추하고 세상만, 악만 사랑하는 그런 부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낳은 자로, 기를 든 자로, 7포인트의 제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그러한 남은 자로, 정말로 정복자로, 또 패수꾼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